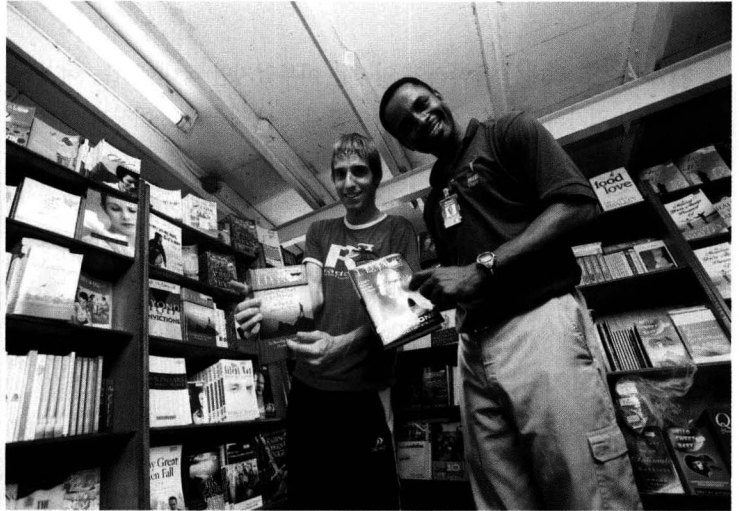


세계 최대 선상서점 운영하는 돌로스호

좋은 책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합니다

글_장동석 기자 | 사진_정화영 객원기자



세계 최대의 선상서점을 보유한, 독일의 국제구호단체 GBA(Good Books for All) 소속 '돌로스호'(DOULOS)가 한국을 찾았다. 1914년 증기화물선으로 건조된 돌로스호는 처음에는 양파를 나르는 화물선이었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호주로 나르는 수송선, 1952년부터는 '프랑카시'라는 이름으로 남미와 지중해를 누비는 호화여객선이었다. 그러던 중 1977년 GBA에 인수되어 '돌로스'라는 이름을 얻고 전 세계를 누비며 선상서점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구제와 구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350여 명의 무보수 봉사자가 움직이는 돌로스호

돌로스호는 지난 30년 동안 103개국 560여 항구를 방문했고 1,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인 최초로 돌로스호 단장이 된 최종상 씨는 "전 세계 어디서나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양질의 도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는 돌로스호가 정박하는 동안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해 실제적이며 유용한 서적들을 찾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객선이며, 떠다니는 UN으로 불리는 돌로스호

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선상서점에는 문학, 어린이, 스포츠, 음식, 종교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이 6천여 종 50여만 권 구비되어 있다. 선상서점 책임자 조 파커(Joe Parker) 씨는 "항해 여건상 습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의 어려움이 많지만 커버 등을 이용해 풍량을 만나도 책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다"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과 함께 책을 통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크다"며 돌로스호 선상서점을 자랑했다. 서점에서 만난 대학생 윤정화 씨는 "배에 있는 서점이라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다양한 원서와 관련 상품들이 많아서 놀랐다"면서 "한국어로 된 책들도 제법 진열되어 있어 많은 나라에 제대로 된 한국의 문화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특이한 것은 이 배에 승선한 사람 모두가 무보수 봉사자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남아공 등 52개국 350여 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기본 승선 기간인 2년 동안 각자의 재능에 따라 서점, 카페, 빵집, 주방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 단장과 선장 역시 무보수이다. 돌로스호는 만 18세가 되면 승선이 허락되고, 현재 승선자들의 평균연령은 26세이다.

언론 관련 담당관 말리 티렐리(Marli Santos-Tirelli) 씨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면서 "어린 자녀들



과 함께 승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을 위한 교사도 승선하고 있다”며 가정 단위 승선과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톨렐리씨는 “30여 명의 한국인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좋은 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둘로스호는 항해 중 52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드라마와 음악, 댄스, 마임 등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는 다시 입항하는 나라와 항구에서 현지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집트도 둘로스호는 2010년을 끝으로 폐선될 예정이다. 둘로스호가 96세의 고령이 되기도 하지만, 세계해양규정 상 2010년 이후 대양을 횡단하는 모든 여객선은 불에 타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좋은 책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GBA의 모토처럼, 둘로스호가 2010년 이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전 세계인들에게 책을 여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

2007년 <한국출판평론·학술상> 공모

(재)한국출판연구소가 출판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비평과 연구를 통해 출판문화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출판평론의 활성화와 출판연구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출판평론·학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분야 및 부문		분량	상금
한국출판평론상	신간 평론 부문	200자×30매 이상 원고 2편, 또는 단행본	대상 1인 200만원 우수상 약간명 각 100만원
	출판 시평 부문	200자×70매 이상 원고 1편, 또는 단행본	
	출판정책 부문		
한국출판학술상	출판관련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등	분량 및 편수 제한 없음	대상 1인 200만원 우수상 약간명 각 100만원

응모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심사결과 발표는 11월 중 개별 통보되고, 12월 중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출판연구소 02-739-9040, 02-737-7106으로 문의하면 된다.